

### 여인홍

농림수산부 환경농업과

**정** 부가 잡초약의 공급을 중단시켜 벼 직파재배 농가들이 잡초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최근 언론보도에 대하여 농약관리를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서 본래 직파재배용이 아니고 일반 이앙재배용 논잡초약이다.

「퀸크로락」성분이 들어 있는 잡초약은 논잡초중 특히 「피」에 잘 듣기 때문에 사용 경험이 있는 농민들에게는 인기가 있었다. 다른

# 벼 직파재배 잡초약 공급중단으로 실농했다는 보도를 보고

결론부터 말하면 「잡초피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금년도 벼 직파재배 면적은 11만7천ha정도(전체 논면적의 11%)로 작황이 매우 양호하다.

잡초약이 없어 제초를 못한다면 작황이 좋을 리 없다. 논잡초약은 직파재배용 7개품목을 포함, 52종이나 공급되고 있다. 언론이 보도한대로 금년부터 공급을 중단한 논잡초약은 「퀸크로락」이라고 하는

잡초약은 「피」가 어릴때 효과가 있고 여러번 사용하여야 하나 「퀸크로락」은 「피」가 상당히 자랐을 때에도 한번만 사용하면 효과가 있어 뒤늦게 사용하기 편리한 농약이기도 하다.

다만 안타깝게도 「퀸크로락」을 사용한 논에 후작물로 토마토, 가지, 감자, 오이등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토양중에 남아있는 「퀸크로락」성분이 이들 작물에 해를



입히는 것이 치명적인 결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91년도에 발견되어 정부는 「퀸크로락」의 공급물량을 연간 29톤(10만ha사용분)으로 제한하고 농촌진흥청 등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약해문제에 대한 이렇다할 대책이 나오지 않아 문제가 있는 농약을 계속 공급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금년부터 「퀸크로락」성분농약을 공급 중단기로 한 것이다.

공급중단과 함께 「퀸크로락」사용 경험이 있는 농민들로 부터 계속해서 공급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퀸크로락」이 없다고 논잡초 방제가 안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퀸크로락」은 지난 4년간 매년 10만ha분만 공급되어 왔으므로 전국벼재배면적의 90%이상은 「퀸크로락」없이 잡초방제가 가능하였다는 것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직파재배용으로 다른 잡초약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이상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극히 국부적인 잡초피해 사례는 결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다.

대부분의 직파재배 농민들은 「퀸크로락」없이도 부지런히 자기 논을 관리하고 적기에 농약을 사용하여 잡초없는 훌륭한 논을 가꾸고 있다.

잡초피해를 비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된 부산시 녹산동 손준형(41세)씨의 직파재배논도 우리부와 농촌진흥청 합동으로 현지확인한 결과 잡초가 거의 없이 작황이 양호하다. 「잡초피해」때문에 자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미망인이 「형제간 불화」로 자살하였다 하면 사건화될 것을 염려하여 「잡초피해」로 자살하였다고 답변하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일부 농민들의 이해부족으로 「벼 직파재배」가 위협을 받아서도 안되고, 이를 계기로 원예작물에 약해를 일으키는 농약이 또다시 공급되어 또다른 농민에게 더 큰 문제를 야기시켜서도 아니되며,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수많은 공무원들이 「해명」을 하느라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못하고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모두가 현실을 명확히 이해하여 주기를 호소하는 것이다. **농약정보**

